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농어촌 선교정책

정재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장)

민족 복음화의 기로에 선 지금 농어촌 지역의 선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불균형적인 선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격심한 차이로 나누어진 상태로 선교는 발전되었다. 이는 물론 정치적인 영향으로 도시중심의 정책을 편 관계로 기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록 농어촌 지역에 소외된 노인들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농어촌과 도시지역이 균형적으로 선교가 잘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민족복음화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모두 함께 발전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역사회의

개발에 농어촌의 교회가 소외된다면 농어촌 복음화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농어촌 선교의 문제점은 첫째로 지도자의 빈곤과 자질을 들 수 있다. 농어촌교회 지도자들은 수년동안 힘을 다해 키워 놓은 성도들을 도시로 보내기 때문에 의욕 상실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농어촌의 노령화 현상이 큰 문제이다. 농어촌의 인구이동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요소이다. 그리고 농어촌의 빈곤은 농어촌 교회의 빈곤과 직결된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교회 자립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농어촌 성도들은 갈수록 줄어든 반면 도시의 교회들은 매우 성장하였다. 이제는 도시의 큰 교회들이 농어촌의 빈약한 교회들을 힘껏 도와야 한다. 교회는 늘 개인과 사회구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개인구원이 본래 기독교의 목적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구원을 위한 각종 봉사과 지역개발 사업이 영혼구원의 효과적 수단으로 병행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빨리 확장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농어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교회주의에만 집착한다면 농어민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농어촌 선교정책과 현황을 언급하기에 앞서 농어촌 선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다. 농어촌의 현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사실상 도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도시에 거대한 교회가 농어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되었다.

둘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막16:15). 이 말씀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과 일치한다(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먼저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의 농어촌이 아니고 어디이겠는가? 그래서 농어촌의 선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셋째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이 피해해있다는 것이다. 그 영향은 현지의 목회자들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농어촌의 목회자들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1개월 사례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도시의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슬픔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도 바울도 먼저 유대인을 돕고 이방인에게 전파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도시의 교회들이 농어촌을 도울 때가 왔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농어촌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넷째는, 농어촌 교회는 거의 미자립교회이다. 성도수가 10명에서 20명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연로한 노인들로서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도시의 교회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미자립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야 한다.

다섯째는, 신학생들이 시골의 농어촌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담임교역자를 돕는 부교역자가 없기 때문이고, 농어촌의 넓은 지역을 모두 전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농어촌 교역자들의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어촌 교역자들의 복지 생활과 관계가 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비는 농어촌 교역자들의 복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일곱째는, 농수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어촌과 도시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농어촌 선교회'는 1984년 1월 1일에 설립

된 이후로 2001년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오중복음을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전 회원이 힘차게 전하고 있다. 오중복음은 (1) 구원(중생)의 복음 (2) 성령충만의 복음 (3) 신유의 복음 (4) 축복의 복음 (5) 재림의 복음을 말한다.

농어촌선교회는 농어촌 산간벽지 수많은 미자립 교회 지원과 교회를 방문 일일부흥성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촌 복음화 활동을 적극추진중이다

농어촌선교회의 목표는 (1) 소외된 내 고향 농어촌을 총력전도 (2) 임, 회원개발 및 사랑실천운동 (3) 농어촌선교회를 위한 특산물 직거래 판매이다. 농어촌선교회의 표어는 “내 고향 농어촌 내가 먼저 선교하자”이며 선교정책은 두 가지이다.

첫째, 농어촌 선교 요원의 확보 및 양성이다. 선교 요원은 현지에 나가서 거부감 없이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간단하게 되는 일은 아니며, 오랜 세월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된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된다. 또한 말씀을 많이 읽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과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며,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획과 예산 문제이다. 이는 선교방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농어촌선교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농어촌교회에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회의 활동 회원은 약 350명 내지 400명이다. 농어촌선교회는 총무실, 기획실, 회원관리실, 음악실, 홍보실, 후생 선교실 등이 있고, 그 이외에 10개의 선교실이 있으며, 각 선교실마다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선교회에서는 각 실별로 농어촌교회를 년 간 100 여 교회를 선별하여, 현지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축회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일일부흥성회를 개최한 후에 서울로 복귀한다.

농어촌교회의 선발기준은 정식교회로 인정된 교회로, 성도수가 30명 미만교회를 선정하여 돕고 있다. 정식교회를 돕는 이유는 이단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농어촌선교회는 한번 선교하러 나갈 때마다, 예산관계로 버스 한대에 2개 실씩 승차하여 출발한다. 그리고 점심식사, 저녁식사, 강사교통비등 금전적인 모든 것은 본선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본선교회는 이를 준비할 때 늘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우선 버스를 선택할 때도 보험에 가입된 회사 중에서 입찰식으로 선정하고있다. 그리고 일반 출퇴근용의 개별 지입 버스는 혹 사고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 또한 운전기사는 꼭 기독교인으로 하는 이유는 운행도중 기도 및 찬송 등을 할 때 거부감을 갖고 난폭 운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교지 교회가 목포라면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지까지는 늦어도 오후 2시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출발하고있다.

본선교회에서는 함께 가시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꼭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점심은 정오 지점의 휴게실에서 식사를 할 것을 계획하고 떠난다. 식사도구는 각 실에서 준비한다면 경제적으로 잇점이 있으나, 번거로운 것이 흠이다. 또한 각 휴게소에서 각자 주문하지 말고, 인원수대로 주문하며, 반찬은 식탁별로 주문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그리고 식사는 모든 회원들이 즐겁게 하도록 해야 한다. 선교지에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한 상태로 선교지 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교지 교회에 도착하면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그 고장에 합당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 즉 아파트 지역인지 순수한 농어촌 지역인지에 따라서 차별적인 선교를 해야 하고, 그 지역의 종교 분포에 따라서 선교를 계획하여야 한다. 아파트 지역은 단지 내에 들어갈 때 거부하면 어깨띠를 하지말고 방문객처럼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때 전도지를 주고 설명하면 성공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기도해 주고 성령님께 맡기

면 된다. 특히 꼭 기도는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불신자든 그 가정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여 주면 감동 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농번기에 농촌에 가면 모두 집을 비우고 논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구르트 같은 간단한 새참을 준비하여 일터에 가서 나누어주면서 때에 따라서는 일손을 도우며 전도하고 기도해 주면 된다. 주의할 것은 교패가 붙은 가정은 기도하여 주고 저녁에 일일부흥회에 참석하라는 것 외에는 일체 삼가 조심해야 한다.

본 선교회에서는 침술, 이·미용 선교를 하는 후생실이 있는데, 미리 홍보하여 몸이 아픈 사람에게 기도와 침술로 선교하고, 여성회원으로 구성된 이미용 선교도 한다. 침술회원은 정식 한의사로서 업혀온 환자가 걸어나갈 정도로 치유의 은혜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농악이 동원되기도 한다. 복을 치고 마을을 돌면서 궁금증을 촉발하여 저녁 부흥성회에 나오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약4시간을 전도한 후 그 마을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그러나 오지(奧地)로써 여의치 않을 시는 교회에 부탁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한다. 단 이때는 미리 파악하여 선교지 교회에 부탁해야 준비를 한다.

예배시간은 절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배순서 및 진행은 일체 본선교회에서 담당한다. 이는 예배방법 및 순서를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든 부흥성회가 끝나면 대개 자정이 가깝다. 그리고 새신자를 환영하고 헌금을 계수(計數)하여 선교지 교회에 넘겨주고 서울로 돌아오면 대부분 새벽이 된다.

본선교회에서는 각자 전도한 새신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 즉 전도된 새신자가 선교지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수시로 권면하고 인도한다. 이것은 선교지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양동 전략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하여 본선교회의 몇 개실 또는 모든 실이 연합하여 한 지역을 강력히 합동전도를 할 때도 있다.

농어촌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즉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직거래 장터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이신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73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은혜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 각 농어촌 선교지 교회의 교역자들께서 추천한 농수산물을 직거래할 때 좋은 점이 많다. 농어민들은 생산품을 팔려면 선교지 교회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교지 교회는 부흥이 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믿고 좋은 생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사업이다.

그 이외에 농어촌의 일손 돕기 및 농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본선교회에서는 농어촌에 고향을 둔 회원이 많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일손 돕기를 나가면 회원들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한다. 봄철에는 모내기, 과수원의 열매 숙기, 고추밭의 지주대 세우기 등이며, 가을철에는 벼베기, 고추따기, 과일수확 등 많은 일을 돕는다. 그리고 오지의 농촌에 농기구 보내기 등을 한다.

또한 당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역자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있다. 현재 농어촌교회에 나가보면 성도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많다. 그리고 농어촌 성도들은 대부분 노령화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의 현금상태도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어촌의 교역자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기본생계도 어려워져 농어촌을 떠나는 교역자도 있다. 그러므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당회 차원에서 매년 약 300여 교회를 선정하여 매월 15만원씩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농어촌교역자들의 어려운 생활과 사역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할 뿐이다. 매년 후원교회를 선정하는 것은 본선교회의 추천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선교회의 예산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원과 본선교회 활동회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농어촌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네비우스의 삼자(三自)원칙이 시행되었다. 삼자 원칙은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자급(自給, Self-support), 자치(自治, Self-government)이다. 삼자 원칙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있는 독립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농어촌 교회의 자립은 스스로 전도하여 성도를 부흥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농어촌의 인구 감소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농어촌 교역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생계 문제와 교회 운영을 위하여 자급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 농어촌의 상황은 목회자들이 사례비만 받고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자급의 원칙을 배우고, 농어촌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특수 목회를 병행하여 목회할 때 자급의 원칙은 더욱 빨리 성취될 수 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근로, 봉사, 희생을 이념으로 철저한 자립의 원칙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도시의 대교회와 독지가들의 지원에 의한 자립이다. 앞으로 농어촌 교회의 지원은 도시의 역량있는 교회들이 농어촌교회와 연결하여 장기적으로 도와야 한다.

셋째, 각 교단차원에서 농어촌 자립을 위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교단은 농어촌 선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소신을 갖고 농어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단 본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최저생계 보장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어촌 선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 선교는 민족 복음화의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단적인 후원과 함께 초교파적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

둘째,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대하여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지체적,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재정과 교육적 후원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서 농어촌 목회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 목회자에게 농어촌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전수하도록 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책 뒷면에 있는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시거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